

※ 부모님이 기억해주세요!!

-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마세요.
- 외출 시에는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니세요.
-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.
- 자녀에 관한 정보들을 기억해 주세요.
- 자녀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두세요.
- 정기적으로 자녀사진을 찍어두세요.

※ 아이에게 꼭 알려주세요!!

- 아이에게 이름 · 나이 · 주소 · 전화번호 · 부모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치세요.
- 밖에 나갈 때는 누구랑 어디에 가는지 꼭 이야기해요.
-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 시키세요.

※ 「아동안전지킴이집」이란?



학교주변 · 통학로 · 공원 주변의 문구점, 편의점, 약국 등을 「아동안전지킴이집」으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 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곳입니다.

※ 「아동안전지킴이」이란?



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· 놀이터 · 공원 등을 순찰함으로써 아동성폭력 · 학교폭력 · 실종 · 유괴 등 아동대상 범죄 예방과 비행 청소년 선도 등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어른들입니다.

어린이 여러분! 이럴땐 가까운 아동안전지킴이 ·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도움을 요청하세요!!

· 길을 잃어버렸을 때



· 낯선 사람이 따라오거나 위협을 가할 때



· 본인이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



미야방지 3단계 예방 수칙

※ 아이에게 미리 알려주세요!!

STOP .



1. 멈추기

아이가 길을 잃었다면 제자리에 서서 부모를 기다리게 한다.

THINK ?



2. 생각하기

침착하게 이름, 부모님 연락처, 주소를 생각하도록 한다.

HELP !



3. 도움요청

주변 어른이나 건물 안 가게에 도움을 요청하게 한다.

실종예방, 등록하면 빨리찾는 지문등 사전등록제



우리가족을 지키는 첫걸음



지문등 사전등록제

「지문등 사전등록제」란?

-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과 사진, 보호자의 연락처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.

「등록대상」은 누구인가요?

- 18세미만 아동, 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인, 치매환자가 등록대상입니다.



「사전등록」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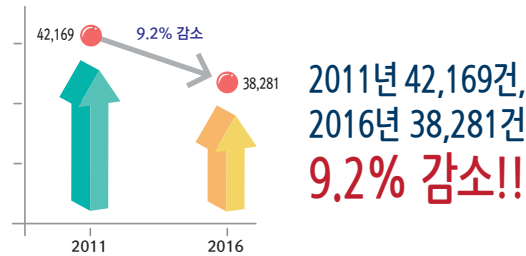
※ 아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
- 안전드림 앱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합니다.
- www.safe182.go.kr 접속 또는 플레이스토어, 앱스토어에서 안전드림앱 다운 후 등록합니다.
- 가까운 지구대·파출소에 방문 등록합니다.
- 어린이집(유치원), 특수학교·학급 등에서 신청 후 등록합니다.
- '17년 5월 방문등록 신청 기간 내에 원장 또는 선생님께 등록 신청해 주세요.

등록의 필요성

아동 등의 실종예방에 효과적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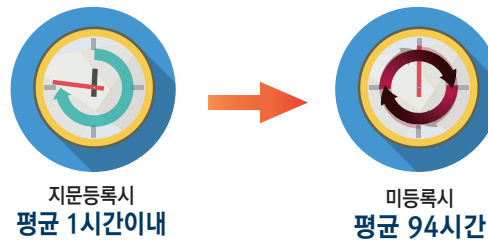
- '12년 사전등록제도 시행이후 실종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.



- 실종아동신고의 대부분은 모두 찾고 있지만 사전등록여부에 따라 찾는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.

사전등록을 활용하면 더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

미야발견 소요시간 (실종신고접수에서 보호자인계까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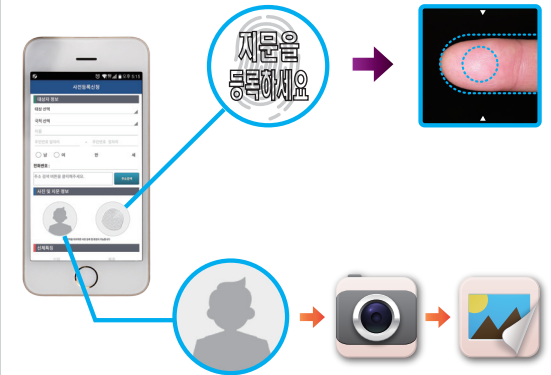


지문등 사전등록제도는 '12년부터 '17년 3월까지 총 320만명이 사전등록을 마쳤습니다.

쉽고 간편한 '모바일 안전드림앱'

경찰관서방문 없이 지문까지 등록, 정보 수정이 가능

- 카메라로 지문을 가이드라인에 위치하면 자동으로 촬영됩니다.
- 3세미만은 지문 융선의 미발달로 지문 촬영이 어려울 수 있어 얼굴 사진촬영을 권장합니다.



- 아이의 얼굴을 '사진가져오기'나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.
- 실종시 경찰시스템상 유사사진 검색기능으로 발견합니다.

실종신고·제보는 물론 실종아동 검색까지 한번에 가능

